

워필드는 유신진화론을 주장하였는가?

박찬호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조직신학)

- I. 들어가는 글
- II. 워필드의 배경: 핫지와 맥코쉬 그리고 바빙크
- III. 워필드에 대한 엇갈린 해석
- IV. 유신진화론에 대한 반론
- V. 결론

[초록]

벤자민 워필드는 찰스 핫지와 함께 구프린스톤을 대표하는 신학자이다. 그는 성경의 무오성을 믿으면서도 유신진화론을 수용한 사람으로 인구에 회자되곤 하였다. 이는 그의 저술들을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당시의 진화론에 대해 상당 부분 개방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적 의미에서 유신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주장들에 대해 워필드가 과연 찬성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워필드는 유신진화론에 어느 정도 여지를 둔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유신진화론을 주장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워필드가 유신진화론을 지지하였다는 주장은 그런 면에서 보면 다소 부주의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시대의 유신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주장 가운데 한 가지는 아담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워필드가 유신진화론을 주장하였는가 하는 문제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많은 부분 진화론에 대해 여지를 남겨두는 것 같은 워필드이지만 이담의 역사성과 관련하여 유신진화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지는 않음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복음주의 신학이 유신진화론을 수용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의 역사성은 유신진화론의 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워필드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분명하게 복음주의신학의 입장에서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키워드: 워필드, 유신진화론, 프린스톤 신학, 바빙크, 오래된 지구론, 아담의 역사성

논문투고일 2022.01.31. / 심사완료일 2022.03.02. / 게재확정일 2022.03.07.

1. 들어가는 글

지난 2020년 연말까지 미국 국립보건원 원장으로 재직하였던 프랜시스 콜린스(Francis Collins, 1950-)는 게놈 프로젝트의 미국 정부 책임자로 유명하며 대표적인 유신진화론자이다. 그는 무신론 의사였다가 30살 어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복음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콜린스는 2006년 『신의 언어』라는 책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개진하였고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보낸 편지와 이메일을 받고 그 다음 해인 2007년 바이오로고스 재단(BioLogos Foundation)을 설립하였다.¹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인 우종학이 2009년 이른바 “무크따”로 알려진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를 통해 기독교와 과학의 관계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잘 소개한 이후에 2017년에는 자신의 유신진화론을 『과학 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을 통해 보다 본격적으로 개진한 바 있다. 많은 유신진화론자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하지만 우종학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콜린스와 마찬가지로 그도 또한 자신을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으로 자임하기 때문일 것이다.²

2010년 저명한 복음주의 구약신학자인 브루스 월키(Bruce K. Waltke, 1930-)는 진화론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주의자들은 “소수의 광신도”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는 인터뷰를 바이오로고스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아담의 역사성과 관련한 논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리폼드 신학교는 월키를 교수직에서 사임하게 하였다.³ 비슷한 시기에 월키와 비슷한 입장을 밝힌 또 다른 복음주의 구약신학자는 트렘퍼 롱맨(Tremper Longman III, 1952-)이었다. 롱맨은 2009년 9월에 월버포스

* 이 논문은 2022년 백석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1 Francis Collins, 『신의 언어』, 이창신 역 (서울: 김영사, 2009).

2 2009년 초판을 발간한 이후 5년이 지나 우종학은 “무크따”의 개정판을 내었다. 우종학,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 과학과 신앙에 얽힌 해묵은 편견 걷어 내기』(서울: 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14)와 『과학 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를 보라.

3 Hans Madueme-Michael R. E. Reeves eds., 『아담, 타락, 원죄: 원죄에 대한 신학적·성경적·과학적 관점』, 윤성현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12f.

펠로우쉽과 했던 인터뷰에서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창세기 1-2장을 읽지 말라고 경고하였고, “아담”이 실제 개인인지 아니면 인류 전체를 지칭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였고, 창세기 앞부분이 진화론과 저촉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피력하였다.⁴ 2011년에는 웨스트민스터신학교 구약교수였던 피터 엔즈(Peter Enns, 1961-)가 보다 명확하게 아담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여 충격을 더했다.⁵

이렇듯 최근의 유신진화론에 대한 논란은 바이오로고스의 설립 이후 창세기 앞부분의 역사성 또는 아담의 역사성과 관련하여 구약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토론이 구약신학을 넘어 신학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보수적 장로교단인 미국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총회에는 2014년에 유신진화론이 총회의 입장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지만 장로교총회는 이전에 발표된 문서로 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유신진화론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재고하기를 거부하였다.⁶

물론 이전에도 보수적인 신학자들 가운데 유신진화론자들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유신진화론 지지를 천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장로교(PCA) 소속인 팀 켈러(Tim Keller, 1950-)와 위에서 언급하였던 트렘퍼 롱맨⁷ 그리고 북미주개혁교회단(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소속의 제임스 스미스(James K. A. Smith, 1970-)와 리처

4 Madueme-Reeves eds., 『아담, 타락, 원죄』, 13.

5 Peter Enns, 『아담의 진화: 성경은 인류 기원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장가람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피터 엔즈는 이미 2005년에 성경무오설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복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현설적 성경관을 비판하고 성경의 인간성을 제시하였고 결국에는 2008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사임하였으며 지금은 이스턴 대학(Eastern University)에 재직 중이다. 아담의 역사성에 대한 피터 엔즈의 부정은 이 일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아담과 하와의 역사성을 배제한다고 해서 기독교 신학이 해를 입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Madueme-Reeves eds., 『아담, 타락, 원죄』, 13), 아담의 역사성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는 Matthew Barret·Adel B. Caneday eds., 『아담의 역사성 논쟁: 아담의 역사성에 대한 네 가지 관점과 목회적 적용』, 김광남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을 보라.

6 William M. Schweitzer, “The Eight Elements of the Westminster Doctrine of Creation: Why They Are Incompatible with Theistic Evolutionism,” *Puritan Reformed Journal* 7 (2015), 256.

7 John Currid,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는 유신진화론,” Steven Meyer & Wayne Grudem eds., 『유신진화론 비판 (하)』, 소현수 외 3인 공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370f.

드 마우(Richard Mouw, 1940-)⁸ 등이 그 대표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유신진화론을 지지한다고 이들을 복음주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정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조심스러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최근 이런 유신진화론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주는 두 권의 책이 번역이 되었다. 첫째는 새물결플러스의 『아담, 타락, 원죄: 원죄에 대한 신학적·성경적·과학적 관점』(2018년)이라는 책이다. 『아담, 타락, 원죄』는 아담의 역사성에 대한 구약 신학적 논의로 촉발되었던 문제를 원죄론의 문제와 연관지어 이 문제가 어떤 토론의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부흥과개혁사의 2권으로 된 『과학적·철학적·신학적 관점으로 본 유신진화론 비판』(2019년)이다. 이 책은 기본적인 방향이 『아담, 타락, 원죄』와 비슷하지만 지적설계론의 입장에서 서서 유신진화론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표적인 지적설계론자인 스티븐 마이어(Stephen C. Meyer, 1958-)와 조직신학자 웨인 그루뎀(Wayne Grudem, 1948-)이 책의 앞머리에 실려 있는 2편의 “분야별 서론” 가운데 “과학적·철학적 서론”과 “신학적 서론”을 각각 기술하고 있다.

워필드와 관련하여 이미 필자는 두 번의 논문을 통해 그의 창조론이 과연 유신진화론의 입장인지를 논구한 바 있다. 2019년 「창조론오픈포럼」에 게재된 “워필드의 창조론”에서는 워필드가 유신진화론적 입장을 취하였다는 마크 놀과 데이빗 리빙스턴의 견해를 지지하였다. 그런가하면 2년여의 시간이 지나 지난 5월 한국개혁신학회에서 발표한 “워필드 창조론 재고”에서는 이 입장을 반복하여 재스펠의 견해 쪽으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⁹

그렇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티븐 마이어와 웨인 그루뎀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저술한 2권으로 된 『유신

8 Kathryn Applegate·Jim Stumpp eds., 『진화는 어떻게 내 생각을 바꾸었나?』, 안시열 역 (서울: 기독교생회, 2019), 25-35와 261-271를 참조하라. “신앙과 과학의 통합을 추구한 우리 시대 기독교 지성 25인의 여정”이 이 책의 부제이다. 이 가운데 첫째와 마지막 사람이 제임스 스미스와 리처드 마우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신앙과 과학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라는 바람이 이 책의 앞머리 헌사이다.

9 박찬호, “벤자민 워필드의 창조론,” 「창조론오픈포럼」 13/2 (2019), 39-49와 박찬호, “워필드의 창조론 재고,” 「한국개혁신학」 71 (2021), 107-137을 보라.

진화론 비판』이라는 책이 번역 출간된 것이다.¹⁰ 일단 2편의 논문이 필자의 눈길을 끌었다. 첫째는 “피고석의 다윈: C. S. 루이스의 견해”라는 존 웨스트(John West)의 논문이었고 둘째는 재스펠의 “워필드는 오늘날의 유신진화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논문이었다. 2편의 논문 모두 일반적으로 유신진화론을 주장하였다고 이해되고 있는 두 사람인 루이스와 워필드가 현대적 의미의 유신진화론자가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진화의 가능성에 대해 이런 저런 모양으로 긍정적인 여지를 남겨둔 것과 유신진화론을 지지한 것은 다른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두 논문의 저자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필자가 워필드의 창조론에 대한 입장을 바꾸게 된 두 번째 이유는 2020년 기독교 학술원에서 “유신진화론에 대한 웨인 그루렘의 비판”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것이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¹¹ 웨인 그루렘의 견해에 세세한 부분까지 다 동의할 수는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복음주의 신학의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를 유신진화론이 허무는 것이라는 그루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찰스 핫지와 함께 구프린스턴 신학을 대표하는 벤자민 워필드(Benjamin B. Warfield, 1851-1921)는 성경의 무오성을 주장한 보수적인 신학자이면서 유신진화론을 지지한 사람으로 널리 인정되었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다. 이런 주장은 데이빗 리빙스턴과 마크 놀, 그리고 제임스 패커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한 권으로 읽는 워필드 신학』을 발간한 프레드 재스펠은 최근에 워필드가 현대적인 의미에서 유신진화론자가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워필드가 과연 현대적 의미의 유신진화론을 지지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워필드가 신학적인 활동을 하였을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고 마크 놀과 데이빗 리빙스턴의 주장의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재스펠의 반론을 살펴본다. 그런 연후에 현대의 유신진화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그루렘의 비판을 살펴봄에 워필드의 입장에 대한 나름의 결론을 내려보고자 한다. 이런 논의를 통해 필자는 워필드가 그루렘이나 에릭슨

10 Steven Meyer & Wayne Grudem eds., 『과학적·철학적·신학적 관점으로 본 유신진화론 비판 (상) (하)』, 소현수 외 3인 공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11 이 논문은 박찬호, “유신진화론에 대한 웨인 그루렘의 비판,” 『조진신학연구』 34 (2020), 108-137에 게재되었다.

또는 웨퍼와 같이 유신진화론을 지지하지 않는 오래된 지구론의 입장이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물론 유신진화론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유신진화론이 함축하는 난점에 대해 인정하는 리처드 마우의 입장도 워필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II. 워필드의 배경: 핫지와 맥코쉬 그리고 바빙크

찰스 핫지(Charles Hodge, 1797-1878)의 3권으로 된 『조직신학』은 1872-73년에 발간되었다. 핫지는 『조직신학』 1권에서 성운가설(nebular hypothesis)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성운가설은 지금의 빅뱅이론과 같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가설인데 원래는 태양계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이었으나 지금은 전 우주에 걸친 보편적 현상으로 인정받고 있다. 성운가설의 주창자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와 피에르 라플라스(Pierre-Simon Laplace, 1749-1827)라고 알려져 있는데 핫지는 라플라스의 성운가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라플라스의 성운가설은 다윈의 불독이라는 별명을 가진 헉슬리(Huxley, 1825-1895)의 이론을 천체의 기원과 질서를 설명하는데 적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종의 우주 진화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우주의 원초적 상태는 지극히 희박한 상태 속에서 물질이 보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상태였다. 이 물질은 현재 모든 곳에서 존재하는 속성을 또는 힘들이고, 이 힘들의 작용 아래, 그리고 열, 운동 등의 법칙에 따라 거대한 우주의 체계들이 형성되었고, 현재의 조화로운 관계들 속에 배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모든 곳에 식물과 동물을 비롯한 모든 유기체들이 형성되었고 보존되었다.¹²

12 Charles Hodge, 『조직신학 I』, 김귀탁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2), 679.

이 견해에 의하면 “우리는 정신의 개입이 없이도 질서있는 우주를 갖는다. 이처럼 성운가설이 많은 기독교 유신론자들에 의해 주장되는 형식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¹³

이런 맥락에서 핫지는 『조직신학』 2권에서 유신론적 진화론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 체계[다윈의 진화론]가 무신론적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윈이 무신론자였다는 말은 아니다. 다윈은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고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 진화론을 무신론적 의미로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 우주의 기원에 관한 성운 가설에 유신론적인 형태와 무신론적인 형태가 있음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러므로 다윈의 이론에 대한 유신론적 해석도 있을 수 있다.¹⁴

그러므로 핫지는 당시 새롭게 등장하고 있던 성운가설이나 진화론에 대하여 어느 정도 유신론적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가하면 핫지는 1874년에 『다윈주의란 무엇인가?』(*What Is Darwinism?*)란 단행본을 발간하여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비판을 개진하였다. 이 책에서 핫지는 다윈주의가 설계 개념에 반하는 것이기에 명백하게 무신론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핫지의 견해는 1878년 핫지가 죽을 때까지 프린스턴 신학교의 진화론에 대한 태도를 결정지었다. 그러므로 비록 핫지는 모든 진화론적인 생각이 기독교 신앙과 갈등관계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다윈주의가 그 기본전제에 있어서 명백하게 무신론적인 성향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예리하게 지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런 사정은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나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13 Hodge, 『조직신학 I』, 680.

14 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2 (Grand Rapids: Eerdmans, 1977), 16. 이 부분에 대한 정보는 우병훈에게 빚지고 있다. 우병훈, “개혁신학의 관점으로 평가한 진화 창조론: 우중학, 『과학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60 (2018), 145-208.

수 있다. 어느 정도 진화의 가능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진화론이 가지는 자연주의적 함축 때문에 카이퍼와 바빙크는 찰스 핫지처럼 다윈주의 진화론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¹⁵

찰스 핫지가 재직하고 있었던 프린스턴 신학교와는 완전히 별개의 기관이었던 프린스턴 대학(당시는 뉴저지 대학)의 존 맥클린(John Maclean Jr., 1800-1886, 재임 1854-68) 학장 또한 다윈의 진화론을 거부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1868년 맥클린 학장이 은퇴하고 철학자 제임스 맥코쉬(James McCosh, 1811-94, 재임 1868-88)가 학장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맥코쉬는 다윈주의의 많은 부분이 건전한 것으로 증명될 수 있으리라 믿었으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준비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즉 과학과 종교 사이의 갈등 대신에 둘 사이의 화해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맥코쉬에게 진화론은 무신론적인 것이거나 성경과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적대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미국의 장로교인들은 프린스턴에 기반을 둔 진화에 대한 두 견해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었다. 프린스턴 신학교는 핫지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축출당한 1929년까지 핫지의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프린스턴 대학은 진화생물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학의 세계적인 본부가 되었다.¹⁶

워필드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1887년이었다. 워필드는 1921년까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가르쳤다. 워필드와 같이 1921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헤르만 바빙크는 당시로서는 신흥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윈의 진화론과 지질학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다윈주의에 대해 바빙크는 그것이 유물론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고 유물론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를 얻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도덕을 전복하여 우리의 인간성을 파괴한다”고 비판하고 있다.¹⁷ 진화론은 또한 “인류의 연대, 통일성, 원거주지에 관해서도 성경과 충돌한다.”¹⁸ 근대 인류학이 제시하는 인류의 연대에 대해

15 우병훈, “개혁신학의 관점으로 평가한 진화 창조론,” 180.

16 위키피디아 찰스 핫지를 소개하고 있는 https://en.wikipedia.org/wiki/Charles_Hodge와 맥코쉬를 소개하고 있는 https://en.wikipedia.org/wiki/James_McCosh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7 Herman Bavinck, 『개혁 교의학 2』, 박태현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648(#280).

18 Bavinck, 『개혁 교의학 2』, 648(#281).

바빙크는 “확정되지 않은 동화 같은 수치”라고 폄하하고 있다. “이 숫자들은 일만 년에서 오십만 년, 그리고 그 이상을 오간다.... 다윈 자신은 『종의 기원』 초판에서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한 기간이 3억 년이라고 했으며, 다른 학자들은 훨씬 더 오랜 연대를 주장했다.... 지질학에 기초한 계산은 가설적이고 결코 확실하지 않다. 지질학 자료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¹⁹

호남신학대학의 신재식에 의하면 다윈은 지구의 나이, 자연 선택의 구체적인 메커니즘, 이타성 현상 등을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문제들로 쪼갰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지구의 나이는 다윈이 주장하고 있던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가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시간인 3억년 보다 훨씬 짧았다. 1860년대 스코틀랜드 물리학자로 나중에 켈빈 경으로 불리게 된 윌리엄 톰슨(William Thompson, 1st Baron Kelvin, 1824-1907)은 “지구가 원래 녹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구(球)라고 가정하고, 단단한 지표면이 형성될 정도로 냉각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계산”했는데 그 수치는 2000만 년과 1억 년 사이였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구의 나이보다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지만, “다윈이 제시한 방식으로 생물이 진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짧은 시간”이었다. “다윈은 개인적으로 켈빈 경의 결론을 의심했지만, 이 분야에서 반박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1896년, 다윈이 죽은 지 14년 후 방사성 동위 원소를 통해 지구의 나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면서 해결됩니다.”²⁰

다윈이 해결하지 못했던 자연선택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다윈과 거의 동시대 사람이었던 그레고어 요한 멘델(Gregor Johann Mendel, 1822-1884)의 “유전자를 통한 형질의 유전”이라는 설명을 통해서 해결되었다. 멘델은 이런 실험 결과를 다윈이 『종의 기원』을 처음 발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865년에 발표했는데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 다윈도 그 논문의 중요성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런 멘델의 업적은 1900년에 휴고 드 브리스(Hugo de Vries), 칼 코렌스(Karl Correns), 에리히 폰 체르마크(Erich von Tschermak)라는 세 명의 생물학자가 다시 발견하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19 Bavinck, 『개혁 교의학 2』, 649(#281).

20 신재식, 『예수와 다윈의 동행: 그리스도교와 진화론의 공존을 모색한다』 (서울: 사이언스북스, 2013), 297f.

되었고 1930년대에 서얼 라이트(Sewall Wright), 로널드 피셔(Ronald Fisher), 존 홀데인(John B. S. Haldane) 등의 학자들이 집단 유전학과 자연 선택의 관계를 일반 원리로 종합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른바 '신다윈주의'(Neo-Darwinism)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²¹

그러므로 바빙크가 신학 작업을 하던 시기인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다윈의 진화론이 “진화의 유전적 메카니즘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고한 과학 이론으로 대우받지” 못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² 그런 면에서 보면 카이퍼나 바빙크의 진화론에 대한 비판을 지금의 진화론에 적용하는 것은 다소 시대착오적인 면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질학에 대한 바빙크의 주장은 너무나 부정적이다. “지질학상의 기록은 매우 파편적이고 일관성을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질학상의 기록을 읽어내는 일에는 불확실한 것투성이다.”²³ 기본적으로 바빙크는 “우리에게는 선사 시대 사건이나 과정을 산정하는 데 적용할 정확한 표준이 전무하다”고 주장한다.²⁴ 바빙크는 “성경으로부터 정확한 계산은 얻을 수 없다”는 후치우스(Gisbertus Voetius, 1589-1676)의 말을 인용하면서 “성경의 연대기와 지질학적 산정을 교조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²⁵

바빙크는 지질학자 리터 폰 호글러(Ritter von Holger)의 다음의 말을 아주 정확하고 멋진 말이라며 인용하고 있다:

우리는 휘장이 이미 달린 이후에서야 비로소 극장에 도착했다는 불쾌한 사실에 직면한다. 우리는 무대 뒤에 남겨진 장식들, 소품들, 무기들 등(이것들은 말하자면 고생물학적 발견물들 또는 화석들이다)으로부터 상연되었던 연극을 추측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가 틀릴 경우, 그것은 전적으로 변명이 가능한 일이다.²⁶

21 신재식, 『예수와 다윈의 동행』, 300. 신다윈주의 이후 진화 생물학의 '근대적 종합'(The Modern Synthesis)과 다윈이 해결하지 못했던 이타적 행동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신재식, 『예수와 다윈의 동행』, 300ff를 참조하라.

22 신재식, 『예수와 다윈의 동행』, 299.

23 Herman Bavinck, 『개혁파 교의학』, 김찬영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518(#277).

24 Bavinck, 『개혁파 교의학』, 519(#277).

25 Bavinck, 『개혁 교의학 2』, 633(#278).

이어서 바빙크는 진화론을 선협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화석 기록을 사용함에 있어서 순환론에 빠지기 쉽다. 이때 지질학적 층에 존재하는 비밀관성은 쉽게 간과되며, 각기 다른 종류의, 중간 형태가 없는 유기 생물의 풍부한 세계에 대한 증거들은 쉽사리 무시된다.”²⁷ 우병훈은 카이퍼와 바빙크 모두 나름 “진화”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자세히 읽어보면 카이퍼가 ‘진화’ 자체에 대한 생각을 일체 거부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는 유신적 진화론이 상정가능하다고 주장한다.²⁸

주목할 사실은 바빙크 역시 진화의 개념 일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는 ‘진화’(evolution)라는 말 대신에 ‘발전’(development)이라는 말을 즐겨 쓴다.²⁹

바빙크는 “발전이란 창조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에 근거했을 때만, 그리고 창조 신앙고백에 속해 있을 때만 가능하다”³⁰라고 말하고 있으며, “진화론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창조로 돌아가게끔 한다”³¹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바빙크는 “물질은 물질로, 식물은 식물로, 동물은 동물로, 인간은 인간으로 남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하나님이 이런 굽직한 계통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발전’이 있도록 하셨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³²라고 우병훈은 주장하고 있다. 이런 설명은 바빙크가 소진화는 인정하지만 대진화는 부정하는 입장인 밀라드 에릭슨의 점진적 창조론과 유사한 입장이었음을 보여준다고

26 Bavinck, 『개혁 교의학 2』, 628(#277).

27 Bavinck, 『개혁파 교의학』, 519(#277).

28 우병훈, “개혁신학의 관점으로 평가한 진화 창조론,” 177.

29 우병훈, “개혁신학의 관점으로 평가한 진화 창조론,” 178.

30 Herman Bavinck, “Creation or Development?,” *Methodist Review* 83 (1901), 866. 우병훈, “개혁신학의 관점으로 평가한 진화 창조론,” 178에서 재인용.

31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ed., John Bolt, trans. John Vriend, vol. 2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4), 520(#280).

32 우병훈, “개혁신학의 관점으로 평가한 진화 창조론,” 179.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오래된 지구론의 하나이다.

III. 워필드에 대한 엇갈린 해석

놀과 리빙스톤이 워필드가 유신진화론을 주장하였다는 확신은 다음 두 가지 고려 사항에서 기인한 것이다. 첫째, 제임스 오르(James Orr, 1844-1913)의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God's Image in Man*)에 대한 1906년 서평에서 워필드는 영혼과 몸이 별개로 따로 발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함께 가야하며, 인간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번에 창조되었다는 주장과 인간의 몸은 동물로부터 진화되었다는 주장은 모순이라는 오르의 주장을 언급했다. 여기서 워필드는 “인간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진화와 창조의 결합을 다시 제안”했고, “인간 몸에 대한 진화론적 설명의 신학적 정당함을 명백히 인정했다”라고 놀과 리빙스톤은 주장하고 있다.³³

둘째, 워필드가 진화론자라는 놀과 리빙스톤의 확신은, ‘칼빈의 창조론’에 대한 워필드의 1915년 논문에서 기인한 것이다. 워필드는 이 논문에서 하나님께서 2차 원인을 사용해서 창조하신다는 칼빈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워필드는 “칼빈의 창조론이... 인간 영혼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서 진화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워필드는 “칼빈은 어떤 진화론도 갖지 않았지만, 진화를 가르쳤다.... 무에서 생겨나지 않은 모든 것이 사실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워필드에 따르면 칼빈의 이 교리는 그냥 진화가 아니라 ‘순수 진화론’(a very pure evolutionary scheme)이었다.³⁴ 놀은 이것을 ‘진화에 대한 워필드의 가장 강한 긍정’으로 묘사했다.³⁵

33 B. B. Warfield, *Evolution, Science and Scripture*, Mark A. Knoll & David Livingstone eds (Wipf and Stock, 2019), 231-33. Fred G. Zaspel, 『한 권으로 읽는 워필드 신학』, 김찬영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4), 618.

34 B. B. Warfield, *The Works of B. B. Warfield* (Grand Rapids: Baker Book, 2000), 5: 303-305.

35 Mark Knoll, *Modern Reformation* 7/3 (1998). Zaspel, 『한 권으로 읽는 워필드 신학』,

여러 기독교 신학자들, 심지어는 보수적인 학자들 가운데서도 소수의 신학자들이 유신론적 진화론으로 일컬어지는 견해를 받아들였다. 대표적으로 제임스 패커(James I. Packer, 1926-2020)는 성경의 무오성에 관해 토론하면서 북미에서의 복음주의자들이 모든 형태의 생물학적인 진화론은 성경과 상반된다는 입장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신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유보적인 입장임을 피력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하였던 리빙스톤과 놀의 주장과 같이 패커는 워필드를 대표적인 유신진화론자로 지칭하고 있고 워필드의 입장을 따라 자신도 유신진화론자임을 자임하고 있다.³⁶

하지만 워필드가 성경의 무오를 주장하는 보수적인 신학자였음에도 진화론을 수용한 사람이라는 놀과 리빙스톤의 견해에 대해 재스펠은 동의하지 않는다. 재스펠도 워필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부분 긍정적으로 진화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스펠은 워필드가 진화에 대해 유보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어쩌면’(in any case) 참이라고 말하는 바다. 우리는 진화의 사실성에 대해 이베라흐가 가진 확신 같은, 포괄적인 확신을 결코 가질 수 없음을 분명히 하길 원한다. 우리는 증거에 뒤처지기도 원하지 않고 증거에 앞서기도 원하지 않는다.”³⁷

리빙스톤과 놀의 주장에 대하여 재스펠은 리빙스톤과 놀이 진화에 대한 워필드의 견해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추론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재스펠은 워필드가 생애 전체에 걸쳐서 진화론을 수용했던 사람이라는 리빙스톤과 놀의 주장에 대해 반대하며 워필드가 젊은 시절 한때 진화론을 받아들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30대 초반에 진화론을 버리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 워필드는 “비록 진화에 열린 태도를 견지했을지라도 진화를 자기 입장으로 받아들이기를 계속 거부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재스펠은 주장하고 있다.³⁸ 기본적으로 재스펠은 워필드가 진화론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말하지

621에서 재인용.

36 J. I. Packer, *Evangelical Anglican Identity Problem*, 5. Alister McGrath, *J. I. Packer: A Biography*, 신재구 역, 『제임스 패커의 생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331f을 보라.

37 Warfield, *Evolution, Scripture, and Science*, 152.

38 Zaspel, 『한 권으로 읽는 워필드 신학』, 624.

않고 있는 “분명한 불가지론”의 입장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진화에 대한 워필드의 견해는 무엇인가? 워필드는 그리스도인이 “진화가 하나님의 섭리 방법에 대한 하나의 제안된 설명이라는 자신의 본분을 지킬 때, 진화와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것을 신학적이고 과학적인 가능성으로 허용하기는 했지만, 과학적 사실로 분명하게 승인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워필드는 몇몇 진화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지만, 진화를 명백하게 받아들인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진화에 무척 관심을 가지고 진화를 기꺼이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발언도 했지만, 워필드 자신은 언제나 유보적이다.”³⁹

그러면 워필드가 진화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 재스펠은 “놀과 리빙스틴이 인정한 대로 ‘성서주의자’인 워필드가 글자 그대로 이해된 하와 창조 기사가 진화와 상충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그 외에도 “영혼의 기원이나 죽음 같은 여러 내용”도 여전히 워필드에게는 진화론을 수용하는데 있어 장애물이었을 것이라고 재스펠은 보고 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워필드는 이따금 진화를 허용하긴 했으나 진화가 사실이라거나 자신이 진화에 동의한다고 분명하게 말한 적은 없다는 점이다. 분명하게 밝힌 것은, 자신은 30세 쯤 진화론을 버렸고 여전히 진화론에 회의적이라는 것이다.”⁴⁰

이와 같이 놀과 리빙스틴 그리고 재스펠은 동일한 한 사람 워필드의 때로는 동일한 자료들을 또 때로는 서로 다른 자료들을 해석하여 각기 다른 결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어쩌면 워필드 자신의 모호한 입장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때로는 상반되는 듯하기까지 한 워필드의 모호한 주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한 가지 가능한 해결책은 현대의 유신진화론을 반대하는 논리를 살펴보는 것이다.

IV. 유신진화론에 대한 반론

39 Zaspel, 『한 권으로 읽는 워필드 신학』, 624f.

40 Zaspel, 『한 권으로 읽는 워필드 신학』, 625.

웨이인 그룹은 유신진화론이 성경적 창조론과 열두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며 그렇게 될 때 유신진화론은 열한 가지 기독교 교리를 부정하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룹은 유신진화론이 부정하게 되는 열한 가지 기독교 교리를 제시하고,⁴¹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반론을 통하여 그룹이 주장하고자 하는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⁴²

첫째, 창 1-3장을 역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비역사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창세기 본문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적인 해석의 틀을 받아들여 성경의 해당 본문을 읽기 때문이다. 둘째, 창세기의 여러 가지 문학적 요인은 창 1-3장이 역사적인 진술로 이해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증거해 주며, 창 1-3장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임을 보도하고 있다. 셋째, 예수님과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은 신약 성경의 11권의 책에서 창 1-3장의 역사성을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 넷째, 창 1-3장에 있는 사건들 가운데 몇 가지 역사성이 부정된다면 그 사건들에 근거하고 있는 많은 결정적인 기독교 교리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신진화론에 대한 그룹의 비판은 창 1-3장의 역사성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른바 아담의 역사성과 관련한 비판이 그 주종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제스펠은 워필드가 “아담과 (아담에게서 창조된) 하와는 역사적 인물들이었으며, 이들은 완전한 상태로 창조되었고, 인류가 이들에게서 유래되었으며, 이들의 죄가 첫 번째 사람의 죄였고, 인류와 또 인류와 함께 온 피조물이 아담 안에서 타락했다”고 주장하며 그렇다면 워필드는 유신진화론자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⁴³

제스펠은 웨인 그룹이 제시하고 있는 성경의 설명과 다른 열 두 가지 유신진화론의 주장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워필드는 이것을 부인할 것이다”라고 반론

41 유신진화론에 대한 그룹의 비판과 관련한 상세한 논의를 보려면 박찬호, “유신진화론에 대한 웨인 그룹의 비판,” 『조직신학연구』 34 (2020), 108-37을 참조하라.

42 Wayne Grudem, “성경적 신학적 서론: 창조에 대한 성경의 기술과 주요 기독교 교리들에 대한 유신진화론의 불일치,” 『유신진화론 비판 상』, 88f.

43 Zaspel, “워필드는 오늘날의 유신진화론을 지지하지 않았다,” 『유신진화론 비판 하』, 531f.

을 제기하고 있다. 그 가운데 아담의 역사성과 관련 있는 내용과 “종류대로”에 대한 설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었다(아마도 그들은 전에 존재한 적조차 없었을 것이다).

워필드는 이것을 부인할 것이다. 워필드는 아담과 하와가 역사적 인물이며 최초로 쌍을 이룬 사람이라고 단언했다.

6.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사람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담과 하와보다 훨씬 이전에 도덕적으로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워필드는 이것을 부인할 것이다. 워필드는 죄가 아담에 의해 인류 안으로 들어왔다고 단언했다.

7. 사람의 죽음은 아담의 죄의 결과로 시작되지 않았다. 그 까닭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했고, 그들은 항상 죽어야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워필드는 이것을 부인할 것이다. 워필드는 사망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인류에게 그리고 창조 질서에 이르렀다고 단언하는 듯하다.

9. 하나님은 여러 “종류대로” 물고기, 새, 그리고 땅의 동물들을 창조하기 위하여 자연 세계 안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하지 않으셨다.

워필드는 이것을 부인할 것이다. 워필드는 이 사안에 대해 단지 지나가면서 말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어 동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단언할 만큼 충분히 이것과 또 관련된 토론에 대해 말했다.⁴⁴

⁴⁴ Zaspel, “워필드는 오늘날의 유신진화론을 지지하지 않았다.” 524-526. 강조는 재스펠의 것이다.

이른바 워필드는 아담의 역사성에 대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으며 종간의 진화라고 할 수 있는 대진화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유신진화론에 대한 토론과 관련하여 아담의 역사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로 부상하고 있다. 『아담의 역사성 논쟁: 아담의 역사성에 대한 네 가지 관점과 목회적 적용』이라는 책은 부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아담의 역사성과 관련하여 네 가지 관점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고 서로의 입장에 대한 논평을 하고 있다. 첫째 입장은 캐나다 앨버타 대학 세인트조세프 칼리지의 과학과 종교학 교수인 데니스 라무뤼(Denis O. Lamoureux)의 진화적 창조론, 즉 유신진화론의 입장인데 “역사적 아담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입장은 휘튼 대학 구약교수인 존 월튼(John H. Walton)의 원형적 창조론의 입장이다. 역사적 아담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아담이 지구에 존재했던 첫 번째 인간이거나 모든 인류의 조상은 아닐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아담이 인류의 원형적 대표자라고 월튼은 주장하고 있다.⁴⁵

셋째 입장은 커버넌트 신학교의 구약교수인 존 콜린스(C. John Collins, 1954-)의 오래된 지구 창조론의 입장이다. 아담은 역사적 인물이지만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으며 그가 속한 부족의 족장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콜린스는 유신진화론에 대해서는 비판적 태도를 보인다. 마지막 네 번째 입장은 윌리엄 배릭(William D. Barrick)의 젊은 지구 창조론의 입장이다. 아담은 본질적으로 어떤 원형(월튼)이거나 생물학적 진화의 산물(라뮈르)이 아니다. 배릭은 콜린스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성서 교리들이 역사적 아담으로부터 유래하거나 그에게 의존한다고 믿는다. 배릭은 역사적 아담과 젊은 지구 창조론은 서로에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⁴⁶

책 뒷 부분에는 베델 대학교에서 16년을 가르쳤고 지금은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 있는 우즈랜드힐즈교회의 담임목사인 그레고리 보이드(Gregory A Boyd)

45 Ardel B. Caneday & Matthew Barrett, 『아담의 역사성 논쟁: 아담의 역사성에 대한 네 가지 관점과 목회적 적용』, 김광남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37ff.

46 Caneday & Barrett, 『아담의 역사성 논쟁』, 41ff.

와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에서 15년간 담임목사로 사역하였으며 지금은 휘튼 칼리지의 총장으로 재직 중인 필립 라이켄(Philip G. Ryken)이 묵회적인 입장에서 역사적 아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보이드는 개인적으로는 아담의 역사성을 인정하는 입장이지만 “역사적 아담이 있든 없든 우리의 믿음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라이켄은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아담이 없다면, 우리는 세계와 우리의 믿음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⁴⁷

박형룡(1897-1978) 박사가 1932년 미국 켄터키주 남침례교 신학교에 제출한 박사논문의 제목은 “자연과학으로부터의 반기독교적 추론들”(“Anti-Christian Inferences from Natural Science”)이었다. 박형룡 박사는 기독교에 대한 반대가 기독교와 과학과의 관계에 대한 지극히 단편적인 지식에서 연유한 것이기에 만일 현대의 과학을 정확히 제대로 알게 되면 그런 기독교에 대한 반대가 없어질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이 논문을 쓰게 되었다고 논문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박형룡의 변증학은 세 가지 점에서 구프린스턴 신학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⁴⁸ 첫째, 과학과 종교는 서로 대결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과 종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우주의 두 국면일 뿐이다. 둘째, 1920년대에 이미 ‘근본주의자’로 불리우기 시작하던 많은 보수주의자들과는 달리 박형룡은 프린스턴 신학자들과 같이 현대 과학의 업적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셋째, 박형룡은 워필드의 입장과 유사하게 유신진화론의 과학성을 의심하면서도 ‘이차적 방어 라인’(secondary defensive line)으로 어느 정도 여지를 두고 살펴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진화론은 하나의 가변적인 가설일 뿐 발견되거나 증명된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과학이 더 발달해서 진화론이 사실로 판명된다 해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를 거짓으로 증명하지는 못한다. 바로 유신진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박형룡은 박사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다.⁴⁹

47 Caneday & Barrett, 『아담의 역사성 논쟁』, 45.

48 장동민, 『박형룡의 신학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8), 111-16.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신열 교수에게 빚지고 있다. 이신열, “한국 개혁신학의 창세기 1장 이해,” 『창조와 섭리』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21), 354. 이신열 교수는 이 논문에서 박형룡과 박윤선이 창세기 1장과 관련하여 어떤 주장을 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49 박형룡, 『박형룡박사저작전집 15』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8), 173.

박형룡은 1970년대를 전후해서 유신진화론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었다. 유신진화론에 반대하는 어조가 매우 부드럽고 학문적이었던 박사 논문에서와는 달리 이번에는 유신진화론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였다. 박형룡은 신복음주의자라고 일컬어지는 버나드 램(Bernard Ramm)이나 에드워드 카넬(Edward J. Carnell)이 유신진화론이 성경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보수주의 입장에서조차 창조 6일을 역사적으로 보지 않는 자들이 있음이 사실이지만 진화론을 받아들여가고 장기창조를 말하는 보수주의자는 일찍 없었다. 여기서 신복음주의자는 보수주의자가 아님을 자증함이 분명하다.”⁵⁰

박사논문에서 유신진화론에 대해 어느 정도 여지를 두었던 박형룡 박사가 유신진화론을 완전히 철저히 반대하고 문자적인 해석 외의 다른 해석들을 자유주의적인 해석으로 자신의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의 신학 전체의 변화와 관련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어쨌든 박형룡의 신학이 그 방향에 있어 “보다 더 보수적이고, 더 교리주의적이고, 더 근본주의적으로 변하였다”라는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⁵¹

어쨌거나 구프린스턴 신학자 워필드가 진화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하는 입장은 아니었다는 면에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는 것 같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진화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가 존재한다. 이런 자세는 지양되어야 할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꽤나 인기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노만 게이슬러와 윌리엄 로취는 프랜시스 콜린스가 2007년에 설립한 바이오 로고스(BioLogos)가 가지고 있는 진화에 대한 자세 때문에 그 단체를 비판하고 있다: “멤버들은 유신 진화론에 불가피하게 헌신되어 있으며 그렇게 해서 성경 무오성에 서 있는 역사적 기독교에 반대하고 있다.”⁵² 이들이 보기에 진화론의

50 박형룡, 『박형룡박사저작집 9』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8), 110.

51 장동민, 『박형룡의 신학연구』, 116.

52 Norman L. Geisler and William C. Riach, eds., *Defending Inerrancy: Affirming the Accuracy of Scripture for a New Generation* (Grand Rapids, MI: Baker Publishing

유신론적 형태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거절하는 것과 유사하다. 젊은 지구론자인 켄 함(Ken Ham)은 진화론에 대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간단하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전체 문제는 우리가 거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뉘라고 단서를 달든 상관없이) 거기에 있지 않았던 오류가 있는 인간의 말을 믿을 것이냐 주위를 맴돌고 있다.”⁵³ 이들은 한 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 대한 하나의 특정한 해석과 동일시하고 있다. 다른 곳에서 알렌 미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류가 창조된 것은 진화와 화해할 수 없다”라고 쓰고 있다.⁵⁴

이런 자세는 적어도 워필드의 견해와는 합치할 수 없는 입장이다. 워필드는 찰스 다윈의 종교적 견해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글을 썼다. “다윈의 종교적 삶”에 대한 논문에서 워필드는 다윈의 진화론이 직접적으로 다윈의 기독교 신앙을 앗아갔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한번 충심으로 그[다윈]에 의해 받아들여진 진화론은 점차적으로 그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여 전체 기독교를 증명되지 않은 망상으로 내버리게 하였다.”⁵⁵ 하지만 그럼에도 워필드는 진화가 그러한 신앙의 거부를 필연적으로 요청하지는 않는다고 믿었다. “찰스 다윈의 생애와 편지”라는 책에 대한 논평에서 워필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유신론자요 기독교인인 많은 진화론자들이 있다.”⁵⁶

재스펠은 자신의 논문의 결론에서 워필드가 진화론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것을 인정하는 말을 했지만 오늘날 이해되고 있는 유신진화론을 지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워필드 자신이 어떤 진화 이론을 생각했는지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⁵⁷

밀라드 에릭슨은 오래된 지구론의 입장에 서서 소진화는 인정하지만 대진화

Group, 2011), 349.

53 Ken Ham, *The Lie: Evolution/Millions of Years* (Green Fores, AR: New Leaf Publishing, 2013), 35.

54 Allen R. Mickle Jr., “Review of Creation and Last Things by Gregory S. Cootsona,” *Conservative Theological Journal* 6/19 (2002), 390.

55 B. B. Warfield, “Charles Darwin’s Religious Life: A Sketch in Spiritual Biography,” *The Presbyterian Review* 9 (1888), 569-601.

56 Mark Noll, *The Princeton Theology* (Baker Book House: Grand Rapids, 1983), 293.

57 Zaspel, “워필드는 오늘날의 유신진화론을 지지하지 않았다.” 532.

는 반대하는 점진적 창조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중간 화석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쟁과 관련하여 에릭슨은 이러한 중간 화석이 없어졌다는 과학자들의 전제에 반대하여 또 다른 매우 합리적인 가능성은 그것들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⁵⁸

이러한 에릭슨의 견해를 웨인 그루뎀과 프란시스 쉐퍼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쉐퍼는 ‘성경에 의해 수립되는 우주론의 자유와 한계’를 논하면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 요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요점의 내용은 진화론에 대한 쉐퍼의 비판 내지는 반대이다. 두 번째 요점은 유신진화론과 관련하여 자신이 비록 유신론적 진화론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논의할 만한 자유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⁵⁹

그루뎀과 에릭슨 그리고 쉐퍼는 공히 유신진화론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루뎀은 유신진화론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 에릭슨은 심지어 보수적인 신학자들 가운데 즉 정통신학자들 가운데 유신진화론자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쉐퍼는 유신진화론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어느 정도 여지를 두고 살펴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복음주의적 입장의 신학자들에게 유신진화론을 수용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루뎀의 주장처럼 유신진화론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창 1-3장의 역사성 즉 아담의 역사성을 부정하게 되는 난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리처드 마우(Richard Mouw, 1940-)의 입장은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리처드 마우는 자신이 유신진화론에 동조하는 입장임을 드러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복음주의 신학의 핵심적인 주장에 대해 굳건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⁶⁰

나는 예컨대 아담의 역사성에 대한 질문에 관해서는 아직 흡족한 답을 찾지 못했다. 나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꼭 붙들고 싶다. 그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58 Erickson, 『복음주의 조직신학 (상)』, 436.

59 Francis Schaeffer, 『최후의 갈등은 없다』(No Final Conflict), 『프란시스 쉐퍼 전집 II』, 문석호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160f.

60 Richard Mouw, “안전한 곳,” 『진화는 어떻게 내 생각을 바꾸었나?』, 264.

죄가 세상 속으로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많은 상태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말한다. 나는 여전히 이 문제와 씨름하는 중이다. 하지만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탐색에 나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탐구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마우는 유신진화론에 대한 것을 토론할 수 있는 보다 큰 텐트를 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워필드를 굳이 유신진화론자로 분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워필드는 최소한 리처드 마우와 같이 아담의 역사성을 함부로 내어버리는 유신진화론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을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은 창조과학회의 입장으로 대변되는 젊은 지구론 이외의 입장에 대해서는 대단히 배타적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젊은 지구론이 창조론을 독점할 수는 없고 또 독점해서도 안될 것이다. 이른바 창세기 1장의 ‘날’을 24시간의 하루로 보는 해석만을 옳다고 생각하여 이와 다른 모든 이론들에 대해서는 타협 이론이라고 비판하고 배척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⁶¹

대표적으로 김병훈은 “오래된 창조론의 신학적 딜레마: 타락 전 죽음?”이라는 논문에서 유신진화론이나 점진적 창조론자들을 비롯한 오래된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김병훈이 이른바 오래된 지구론에 대해 제기하는 가장 주된 반론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전에도 동물의 죽음이 있었다는 주장은 성경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⁶² 하지만 이런 김병훈의 주장에 대해서 그루뎀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에 동물들의 죽음에 대해 성경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대답하고 있다.⁶³ 안토니 후쿠마도 이 부분과 관련하여 웨인 그루뎀과 비슷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인간의 타락 이전에도 피조세계에 죽음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별다른 성경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인정하고 있다.⁶⁴

61 이윤석, “한국의 창조론 논의 현황,” 「창조론 오픈 포럼」 14/1 (2020), 56.

62 김병훈, “오래된 창조론의 신학적 딜레마: 타락 전 죽음?” 「성경과 신학」 72 (2014), 85-121.

63 Wayne Grudem, 『조직신학 상』, 노진준 역 (서울: 은성, 1997), 426.

64 Anthony A. Hoekema, 『개혁신의 종말론』,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6), 111.

V. 결론

찰스 핫지와는 달리 워필드는 진화에 대해 단일한 저술을 쓰지도 않았고 진화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지도 않았다. 여러 부분에 있어 진화를 인정하는 듯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놀과 리빙스톤과 같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워필드를 보수적인 신학자이면서도 이례적으로 진화를 받아들인 대표적인 신학자로 제시하곤 하였다. 그리고 그런 해석은 재스펠이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다만 재스펠은 그럼에도 워필드는 30대 어간에 진화론을 버린 이후로 평생 진화론을 자신의 견해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워필드는 진화론에 대하여 일종의 유보적인 입장이었다고 재스펠은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유신진화론과 관련된 복음주의 신학 안에서의 토론의 내용들을 참조할 때 나름의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여러 부분에서 워필드는 현대 유신진화론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진화론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런 자세는 워필드의 견해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복음주의 신학의 핵심적인 주장에 대한 확신과 함께 보다 여유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접근해보려는 전향적인 자세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Applegate, Kathryn·Stumpt, Jim, eds. 『진화는 어떻게 내 생각을 바꾸었나?』. 안시열 역. 서울: 기독교학생회, 2019.
- Barret, Matthew·Caneday, Adel B., eds. 『아담의 역사성 논쟁: 아담의 역사성에 대한 네가지 관점과 목회적 적용』. 김광남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 Bavinck, Herman. 『개혁 교의학 2』. 박태현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 _____. 『개혁과 교의학』. 김찬영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 _____. “Creation or Development?,” *Methodist Review* 83, 1901.
- _____. *Reformed Dogmatics*. ed. John Bolt, trans. John Vriend. vol. 2,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4.
- Caneday, Ardel B. & Barrett, Matthew, eds. 『아담의 역사성 논쟁: 아담의 역사성에 대한 네 가지 관점과 목회적 적용』. 김광남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 Collins, Francis. 『신의 언어』. 이창신 역. 서울: 김영사, 2009.
- Currid, John.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는 유신진화론,” Stephen C. Meyer & Wayne Grudem, eds. 『유신진화론 비판 (하)』. 소현수 외 3인 공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 Enns, Peter. 『아담의 진화: 성경은 인류 기원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장가람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 Erickson, Millard J. 『복음주의 조직신학 (상)』. 신경수 역. 고양: 크리스천다이제스트, 1995.
- Geisler, Norman L. & Riach, William C. eds. *Defending Inerrancy: Affirming the Accuracy of Scripture for a New Generation*. Grand Rapids, MI: Baker Publishing Group, 2011.
- Grudem, Wayne. “성경적 신학적 서론: 창조에 대한 성경의 기술과 주요 기독교 교리들에 대한 유신진화론의 불일치,” Wayne Grudem et al. eds. 『과학적·철학적·신학적 관점으로 본 유신진화론 비판 상』. 소현수 외 공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 _____. 『조직신학 상』. 노진준 역. 서울: 은성, 1997.
- Hoekema, Anthony A. 『개혁주의 종말론』.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6.
- Ham, Ken. *The Lie: Evolution/Millions of Years*. Green Fores, AR: New Leaf Publishing, 2013.
- Hodge, Charles. 『조직신학 I』. 김귀탁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2.
- _____. *Systematic Theology 2*. Grand Rapids: Eerdmans, 1977.
- Madueme, Hans·Reeves, Michael R. E., eds. 『아담, 타락, 원죄: 원죄에 대한 신학적·성경적·과학적 관점』. 윤성현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 McGrath, Alister E. 『제임스 패커의 생애』. 신재구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4.
- Mickle Jr., Allen R. “Review of Creation and Last Things by Gregory S. Cootsona,” *Conservative Theological Journal* 6/19, 2002.
- Noll, Mark. *The Princeton Theology*. Baker Book House: Grand Rapids, 1983.
- Schaeffer, Francis. 『최후의 갈등은 없다』. 『프란시스 쉐퍼 전집 II: 기독교 성경 관』. 문석호 역.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 Schweitzer, William M. “The Eight Elements of the Westminster Doctrine of Creation: Why They Are Incompatible with Theistic Evolutionism,” *Puritan Reformed Journal* 7, 2015.
- Warfield, B. B. “Charles Darwin’s Religious Life: A Sketch in Spiritual Biography,” *The Presbyterian Review* 9, 1888.
- _____. *The Works of B. B. Warfield* 5. Grand Rapids: Baker Book, 2000.
- _____. *Evolution, Science and Scripture: Selected Writings*. Mark A. Knoll & David Livingstone eds. Wipf and Stock, 2019.
- Zaspel, Fred G. 『한 권으로 읽는 워필드 신학』. 김찬영 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4.
- _____. Fred G. “B. B. Warfield on Creation and Evolution,” *Themelios* 35, 2010.

- _____. “워필드는 오늘날의 유신진화론을 지지하지 않았다.” Wayne Grudem et al. eds. 『과학적·철학적·신학적 관점으로 본 유신진화론 비판하』. 소현수 외 공역.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 김병훈. “오래된 창조론의 신학적 딜레마: 타락 전 죽음?” 『성경과 신학』 72, 2014.
- 박찬호. “벤자민 워필드의 창조론,” 『창조론오픈포럼』 13/2, 2019.
- _____. “워필드의 창조론 재고,” 『한국개혁신학』 71, 2021.
- _____. “유신진화론에 대한 웨인 그루뎀의 비판,” 『조직신학연구』 34, 2020.
- 박형룡. 『박형룡박사저작전집 9』.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8.
- _____. 『박형룡박사저작전집 15』.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8.
- 신재식. 『예수와 다윈의 동행: 그리스도교와 진화론의 공존을 모색한다』. 서울: 사이언스북스, 2013.
- 우병훈. “개혁신학의 관점으로 평가한 진화 창조론: 우종학, 『과학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60, 2018.
- 우종학.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따지다: 과학과 신앙에 얽힌 해묵은 편견 걷어 내기』. 서울: 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4.
- _____. 『과학 시대의 도전과 기독교의 응답』.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 이신열. “한국 개혁신학의 창세기 1장 이해,” 『창조와 섭리』.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21.
- 이윤석. “한국의 창조론 논의 현황,” 『창조론 오픈 포럼』 14/1, 2020.
- 장동민. 『박형룡의 신학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8.

[Abstract]

Did Warfield Contend for Theistic Evolutionism?

Chan Ho Park

(Baekseok Graduate School of Theology, Professor, Systematic Theology)

Benjamin B. Warfield, along with Charles Hodge, is a theologian representing Old Princeton theology. He used to be talked about by the population as a person who believed in the inerrancy of the Bible and accepted the theory of theistic evolutionism. This can be said to be a natural conclusion when looking at his writings. This is because it is true that he is very open to the theory of evolution at the time. However, in the modern sense, we cannot help but give a negative answer as to whether Warfield really agreed with the arguments asserted in the theory of theistic evolutionism. If so, it is true that Warfield left some room for the theory of theistic evolutionism, but it would be difficult to say that he insisted on theistic evolutionism in a modern sense. In that respect, the claim that Warfield supported the theory of theistic evolutionism can be said to be a careless claim.

One of the most important arguments of theistic evolutionism in this era can be said to deny Adam's historicity. The question whether Warfield insisted on the theory of theistic evolutionism should also be examined in relation to this issue. Warfield seems to leave room for much of evolutionism, but it can be said that it is clear that he did not take the position of theistic evolutionism with respect to this historicity of Adam. The same is true of the most important reason why evangelical theology cannot accept

theistic evolutionism. In this sense, Adam's historicity can be said to be the difficulty in theistic evolutionism. Warfield confirms that he is clearly in the position of evangelical theology in this regard.

Key Words: Warfield, theistic evolutionism, Princeton theology, Bavinck, old earth creationism, historicity of Adam

